

#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

최근 들어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맹독성 화학물질로 알려진 불산 누출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함으로써 불산이 어느 덧 유명한 화학물질로 아로새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화학물질은 종류를 불문하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유독성이 있고 잘못 사용하면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유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라도 적절한 사용방법을 지키고 함량기준을 준수하면 인간에게 더없이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용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은 유해성보다는 활용성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째, 화학물질의 용도가 넓어지면서 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안전을 강화해야 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가 수백만 가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이다.

셋째, 그동안에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쉬쉬하면서 덮어버리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함으로써 일정수준을 벗어나는 사고는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20-30년 전에는 공업단지 주변에 주거지역이 거의 없었으나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주거단지가 공업단지에 인접하게 됨으로써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넷째, 산업화의 역사가 일천한 까닭에 설비의 내구연수가 양호해 상대적으로 화학물질 사고가 적게 일어났으나 30-40년이 지나면서 핵심설비나 파이프라인이 노후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국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설비나 연결 파이프에 대한 깊이 있는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도 사고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했더라도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후 환경부 공무원들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보인 얼토당토하지 않은 대응방법이나 결과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설비 및 파이프의 노후화와 안전관련 매뉴얼의 개선 없이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국민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화학저널 2013/2/18〉